

보도자료

- 수 신 : 각 언론사 경제부, 사회부, NGO담당
- 발 신 : 경실련, 소비자시민모임, 진보네트워크센터, 참여연대, 함께하는시민행동
- 문 의 : 경실련 박지호 010-4944-6347 / 소시모 윤명 010-9003-2745
진보넷 오병일 010-2213-9199 / 참여연대 정민영 010-4366-7288
함께하는시민행동 김영홍 010-3242-8482
- 일 자 : 2014. 2. 16(일)
- 제 목 : 5개 시민단체, 개인정보보호 근본대책 촉구 1인 시위 개최 (총2매)

개인정보보호 근본대책, 국회가 입법하라.

5개 시민단체, 개인정보보호 근본대책 촉구 1인 시위 개최
2월 17일(월)~21일(금), 오후 12시~1시, 국회 정문

경실련, 소비자시민모임, 진보네트워크센터, 참여연대,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5개 시민단체는 최근 1억 건이 넘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개선요구가 커진 개인정보보호 근본대책을 국회에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각각 개최합니다.

그 동안 2008년 옥션, 2011년 네이트 등 수 많은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돼 왔지만, 기술적·관리적 대책이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습니다. 하지만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서 보듯 근본적 대책 없이는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피할 수 없습니다.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나 피해구제 역시 불가능합니다.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.

이에 경실련은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,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,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주민번호 체계 개선, 참여연대는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기,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요구하며 각각 단체별로 1인 시위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1

인 시위는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.

단체별 1인 시위는 국회 앞에서 오는 17일(월)부터 21일(금)까지 매일 오후12시부터 1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.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. 끝.

개인정보 보호 근본대책 마련 촉구 1인 시위

- 일 시 : 2014년 2월 17일(월)~21일(금) 오후12시
- 장 소 : 국회 정문

- 단체별 1인 시위 내용
 - 주민번호 체제 개선 (진보네트워к센터)
 -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 (경실련)
 -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(소비자시민모임)
 -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(참여연대)
 -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및 권한 강화 (함께하는시민행동)

※ 문의 : 경실련 박지호 010-4944-6347, 소시모 윤명 010-9003-2745, 진보넷 오병일 010-2213-9199
참여연대 정민영 010-4366-7288, 함께하는시민행동 김영홍 010-3242-8482

경실련, 소비자시민모임, 진보네트워к센터, 참여연대, 함께하는시민행동